

장신구사에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에 관한 연구
-반지를 중심으로-

The study on the symbolic meanings of jewelry history
-Focusing on the ring--

주저자 : 홍혜진 (Hong, Hye-Jin)
상명대학교 디자인연구소

본 연구는 상명대학교 디자인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진행되었음.

1. 서론

- 1-1 연구 목적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2. 장신구에 나타나는 상징성

- 2-1 상징과 의미와의 연관관계

3. 상징을 중심으로 본 장신구의 역사적 배경

- 3-1 고대
- 3-2 비잔틴과 중세
- 3-3 르네상스
- 3-4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
- 3-5 빅토리아 시대
- 3-6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 3-7 제 2차 세계대전

4.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要約)

본 논문은 장신구에 내재하고 있는 상징적 의미에 대한 연구이다. 상징적 의미란 상징의 여러 속성들 중 의미와의 연관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장신구를 사용하는 것은 인류 문명사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나는 본능적 행위이다. 인간은 자신을 치장하기 위한 장식적인 목적이나 바라는 바를 이루기 위한 주술적인 이유에서 권력이나 힘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사랑이나 그리움 등의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장신구를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장신구들 중 상징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반지를 중심으로 장신구의 상징적 의미를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살펴보았다. 고대·중세에는 상징성이 강하게 나타나며 근대와 현대에 이르러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 고대·중세에는 공통성, 보편성을 가진 의미가 많은 반면, 근대 이후 현대에는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가 증가하였다. 시대별로 장신구의 의미들은 시대상황과 연관관계를 맺으며 조금씩 변화하였지만, 장신구는 어떠한 시대상황에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의미와 상징을 불러일으키며 인간의 내면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understand the symbolic meaning of jewelry.

Among various characteristics of symbols, the symbolic meaning represents the correlation between meanings.

Wearing jewelry is an instinctive action that can be witnessed from ancient civilizations. Man used jewelry for various purposes, as an ornament, an amulet, a symbol of wealth or power or as a token of love. In this study, I have researched the symbolic meaning of jewelry in its historic background focusing on rings that show the strongest symbolic characteristic among jewelries. Whereas the symbolic meaning of jewelry was strongly accentuated in the ancient and medieval times, it was gradually weakened in the modern time. Also, while jewelry in the ancient and medieval times showed commonness and universality, jewelry in modern time expressed individuality. Although the meaning of jewelry changed progressively by interacting with the external environment, jewelry has always roused sense and symbolism from our hearts and has acted as a means to express ideas and emotions of human beings.

(keyword)

the symbolic meaning of jewelry

1. 서론

1-1 연구 목적

오늘날 아이가 돌이 되면 금반지나 금팔찌를 선물하고 연인 사이에는 서로 커플링을 교환하며, 결혼식 날 신랑이 신부의 손에 결혼반지를 끼워준다. 이러한 행위는 자연스럽게 관습처럼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행위의 이면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떠한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장신구로 치장하는 행위는 인간의 생활과 더불어 형성되어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신분이나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장식의 목적으로 또는 사랑의 징표 등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왔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신구가 역사적 배경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속되어왔는지를 고찰해보고, 장신구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의 기원과 발전과정을 살펴보는 데 있다. 장신구는 미술사의 여러 영역들, 중 그 중요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장신구사를 찾아보기 어렵고 개별장신구가 갖는 의미에 대한 연구만이 종종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체계적인 연구의 부재 때문에 때로는 상업적인 의도에 의해 본래의 의미가 왜곡되기도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장신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바탕으로 맹목적으로 장신구를 구입하거나, 장신구는 사치품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향을 바로 잡고, 장신구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미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각 시대 상황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맺으며 각 시대의 중요한 사상과 감정들을 반영하고 있는 장신구의 상징적 의미를 체계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장신구의 상징적 의미에 대하여 논하기 전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므로 상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성격들 중 의미와의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조사해보았다. 상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의 문명사 속에서 나타나는 장신구의 의미를 고대, 비잔틴과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 빅토리아 시대,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와 현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각 시대 상황에 대한 요약적 기술과 함께 시대상황이 장신구와 어떠한 연관을 갖는지 알아보고, 각 시대별로 나타나는 장신구의 상징적 의미를 반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장신구들이 갖는 의미도 전반적으로 다루었으나 한편의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방대한 영역이라 판단되어 그 종류를 반지에 한정하여 살펴보았다.

2. 장신구에 나타나는 상징성

2-1 상징과 의미와의 연관관계

인간의 정신은 그 경험의 일부 구성요소가 다른 어떤 구성요소에 대한 인식, 믿음, 정서, 용도 등을 이끌어내는 상징적 기능을 하고 있다.¹⁾ 여기서 전자의 구성요소는 '상징'이고, 후자의 구성요소는 그 상징의 '의미'를 이룬다. 상징

은 과거의 역사 속이나 현재의 삶 속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상징활동은 비본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한 시대에 통하던 상징이 다른 시대에 가서는 인정되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상징활동의 피상성을 보여준다. 같은 징표들이 상징하는 바가 각 시대상황에 따라 전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볼 장신구에서 뿐 아니라 인류의 문명사를 통해 폭넓게 나타난다. 문명사를 아주 대중 훑어보기만 하더라도 상징활동에 관한 사람들의 태도가 시대에 따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징이 어떤 식으로 인간의 내면에서 작용하는지를 의자를 예로 살펴보면, 우리는 눈을 들어 앞에 놓인 채색된 형태를 보고는 '의자가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본 것은 오직 채색된 형태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채색된 형태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곧바로 의자를 떠올려 그것을 사용하려 한다거나 정서적으로 느낀다거나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하는 반응을 보인다. 우리가 매일 생활하는 방식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 과정을 간단한 논리적 추론에 근거하여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색채들에 대한 예전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가 의자 앞에 있다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시대에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기표는 과거의 경험 혹은 지식에 의해 동일한 의미로 이해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의 반복에 의해 모든 기표들은 각기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고 그 의미는 시대에 따라 반복되거나 변화하면서 이어지는 것이다. 이 상징적 연관은 지각하는 사람이 그 본성에 따라 일으키는 능동적인 산물이다. 그것은 상징의 본질과 의미의 본질 사이의 어떤 공통성에 기초를 둔 근거를 필요로 한다. 그 공통성이란 개인에 의해서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닌 사회적인 동의를 의미하는데,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상징활동이 나타나게 된다. 사회적 상징활동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우선 실천적 측면에서 그것은 개인을 특정 행동으로 이끄는 지침이 된다. 그리고 이론적 측면에서 그것은 모호한 정서적 반응을 동반한 궁극적 근거가 됨으로써 상징으로 하여금 각기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의 통일된 의식을 가진 공동체로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때 목표가 되는 것은 두 가지다. 그 중 하나는 공동체를 그 구성원인 개인들에게 종속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개인들을 공동체에 종속시키는 것이다.²⁾ 인간은 자신이 만든 규칙을 지키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런 규칙들은 사회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런 규칙의 근본에 상징과 의미의 관계가 작용하는 것이다. 이들 상징적 요소의 기능은 명확하며 다루기 쉽고 재생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제각기 그 나름의 정서적 힘을 동반하고 있어야 한다. 상징적 기표는 상징들이 갖는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가 이들 상징 각각의 의미에 부여된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의미들을 인식이나 정서, 목적 등이 포함된 요소로서 강력하고 명확한 효력—의미들 그 자체로

1) A.N. 화이트 헤드 지음, 문창옥 옮김: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동과서, p.20 (2003)

2) Ibid., pp.93-99 요약

는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 끌어올린다. 상징활동의 목표는 상징되는 것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일이다.³⁾ 문명사를 통해 보면 각각의 시대에 종교 또는 왕권이나 국가의 권위 등이 상징되는 대상인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중요한 상징활동이 사회에 널리 알려져 공동 목적에 대한 감각을 불러일으키고 다양한 유형의 표현들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세부적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세부적인 표현은 결국 전체의 상징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상징적 표현의 영역 전체에 주목해야 한다. 상징의 이런 속성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대상에 의미를 부여하여 인간의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기하학적인 도형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각각에 상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으며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식물 동물의 이미지 등도 자기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었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인간의 문명사와 함께 발전해온 장신구에서 뚜렷이 나타난다. 언어와 함께 가장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야로 알려진 장신구에 나타난 상징도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 것이다. 장신구에 나타나는 상징적 의미들이 각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식으로 보여지는지 장신구의 여러 종류 중에서 통상적으로 가장 상징적인 의미를 강하게 함축하고 있는 반지를 중심으로 다음 장에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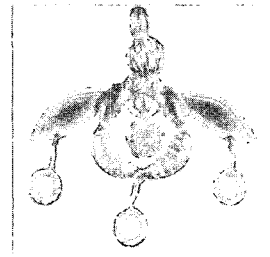
3. 상징성을 중심으로 본 장신구의 역사적 배경

3-1. 고대

장신구로 치장하는 행위는 태고 때부터 지속되어온 인간의 기본속성이다. 인간은 금속이나 돌을 마음대로 다룰 수 있기 전부터 씨앗, 곡식 낱알, 조개껍질로 만든 단순한 모양의 비드(bead)⁴⁾로써 치장을 했다. 기원전에 이미 유럽의 사냥꾼들은 자신의 수확물로 만든 펜던트를 걸고 다녔는데 이 때 사용한 것은 주로 동물의 이빨이나 뿔맹이, 뼈, 물고기의 가시, 조개 등이었고 여기에 구멍을 내어 끈으로 연결해서 목걸이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것은 장신구의 의미 이전에 육체적인 힘이 월등히 뛰어나 사냥이나 고기잡이 등의 방면에서 남보다 훨씬 더 재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도구적 의미가 더 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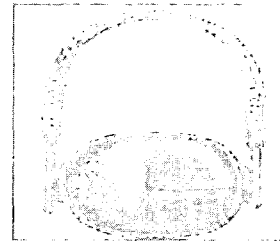
고대의 장신구들 중 상징적 특색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이집트의 장신구들이다. 이집트 장신구의 특징 중 대표적인 것은 부적으로서의 역할이다. 장신구 디자인에 사용 가능한 모티프가 한정되어 있었으며, 여기에는 단순한 장식 효과를 넘어서는 주술적 또는 종교적 의미가 들어 있었다. 그 시대의 가장 일반적인 상징은 태양과 창조를 뜻하는 투구 풍뎡이이다. 하늘에 살면서 어둠을 물리치는 힘인 태양은 단순한 원이나 수레바퀴 모양으로 햇살과 함께 쓰이거나 중앙에 집중된 원들로 표현되었다. 태양은 잘 알려진 대로

전형적인 남성을 상징한다.



[그림 1] 투구 풍뎡이 (출처: 장신구의 역사, p.17)

우디아트 눈⁵⁾은 사악한 눈으로부터 보호를 해 준다고 믿었고, 매일 아침 나일 강에서 꽃봉오리를 여는 연꽃은 부활을 상징했다. 연꽃은 진흙이 가득 고인 연못에서 피어나지만 스스로의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미덕이 있다고 간주되었다. 연꽃 여덟 꽃잎은 우주적인 초화를 상징하며 이집트 왕이 연꽃서 태어났다는 전설때문에 강한 의미를 내포하였다.⁶⁾



[그림 2] 스카라베 반지 (출처 : 반지의 문화사, p.16)

이집트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부터 반지가 일반화되는데 특히 휴대용 인장으로 사용되던 스카라베 반지를 주목할 만하다. 그 시조는 반지보다 역사가 오래된 인장에서 찾을 수 있다. 인장을 크게 나누면 원통인장과 스템프식 인장으로 나눌 수 있다. 원통인장은 점토판 위쪽으로 원통표면에 새겨진 인장을 굴리는 방식이다. 인장은 봉인할 때나 계약할 때 사용했으며, 또한 통치자의 권위를 나타내는 심벌로 사용되었다. 귀중품이었던 인장은 철저히 보관되었다. 도난과 분실을 예방하기 위해 끈으로 묶은 다음 그 끈을 목에 매달거나 팔찌에 매달기도 했다. 기원전 3000년경에 이집트에 도입되었다. 그 뒤 스템프식 인장과 반지를 합체시킨 편리한 인장 반지가 고안되는 역사적 경로를 거치게 되었다. 인장 반지는 인장과 함께 고대 이집트에서는 파라오(솔로몬 왕조 세대까지의 고대 이집트 왕의 호칭)의 왕위 위양 심벌로 되어 있었는데 그 중 유명한 것은 기원전 1000년 전부터 사용된 스카라베형⁷⁾ 인장 반지이다.⁸⁾

스카라베 반지는 라피스 라줄리⁹⁾ 등을 소재로 하여 앞면

5) udjat eye:천공신(天空神) 호루스의 눈을 의미한다

6) 김성희: 주얼리 시간 여행, 생각의 나무, p.139 (2002)

7) 스카라베는 황금층 모양을 한 인장반지를 의미한다.

8) 다카시 하마모토, 김지은 옮김: 반지의 문화사, 에디터, pp.15-20

요약 (2002)

9) 금색이 박힌 질은 파랑색의 불투명한 보석으로 고대의 장신구에 자주 사용되었다.

3) 톱 브노와 지음, 윤정선 옮김: 장:표, 상징, 신화 탐구당, pp.16-25 요약 (1998)

4) bead란 양쪽으로 구멍이 뚫린 알들이 반복적으로 꿰어져 연결된 것을 말한다. 인간의 장신구들 중 가장 오래된 형태에 속하며 현대에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형태이다.

에는 투구풍덩이를 조각하고 뒷면에는 상형문자로 '서명'을 새겼으며, 보석의 황축으로 구멍을 뚫었다. 초기에는 리넨 끈을 꿰어 손가락에 맸지만, 끈 튼튼한 금선으로 대체되었다. 그 뒤 반지의 고리와 스카라베를 연결하는 부분이 좀더 정교해졌고 또 스카라베 자체가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베즐¹⁰⁾에 이름을 새긴 통상적인 의미의 인장반지는 시간이 좀더 흐른 후인 투탕카멘 시대에 이르러 등장한다. 그 이외에도 신과 상징적인 동물 형상을 조각한 정교한 반지와 단순히 연꽃 모티프를 다색상감한 반지도 있다.

3-2. 비잔틴과 중세

기독교적 도상학은 전통을 보존하는 동시에 장신구 제작에 새로운 소재를 부여했다. 예로 비잔틴 시대의 반지 가운데는 연꽃 모양을 만들어 반지 중앙에 보석 대신 붙인 것이 있는데 이 형상은 동정녀 마리아의 상징으로서, 이집트 시대의 상징이었던 태양신이 태어난 연꽃과도 연관이 있는 것이다.

비잔틴 장신구 대부분에서는 기독교적 상징을 볼 수 있다. 이 중 십자가형 펜던트는 시기적으로 가장 일찍 등장했고 인기도 높았다. 하지만 대다수가 전통적인 로마 양식에 단순히 기독교 도상을 덧붙이는 식이었다. 장신구에 등장하는 고대의 이교적인 신이 5세기경에 이르러서야 그리스도나 십자가로 대체되었다. 엔그레이빙¹¹⁾한 보석을 세팅하거나 명문을 새긴 금, 은, 동, 청동, 반지는 비잔틴 제국 내의 도시 각지에서 볼 수 있다. 명문의 주 내용은 착용자에게 신의 가호, 건강, 부귀를 기원하는 종교적인 것인데, 반지의 베즐이나 옆면에 간단한 기원문을 십자형으로 배열한 종교적 모노그램 형식을 띤다. 중세에는 남녀 모두가 장신구를 착용했다. 어린이용으로는 보석 대신 색유리를 소재로 하여 어른용에 비해 크기만 작을 뿐 모양은 똑같은 장신구가 제작되었다. 일부 장신구는 순전히 장식적인 역할만을 맡았으나 대부분 종교적 의미나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다. 반지는 모든 손가락에 그리고 한 손가락에 한 개 이상을 끼었다. 상당수가 단순한 금가락지이며 감상적이거나 종교적인 문구가 새겨져 있다. 중세 이전에도 반지는 제사적·종교적 의미를 지니고 있었으나 고대의 이교에서 근원을 갖는 이 반지의 관습은 기독교 시대인 중세에도 그대로 답습되었다. 중세에 나타나는 특징적인 반지 중 '순례 반지'가 있다. 순례를 떠날 때 사람들은 순례지 명칭이나 그 지방의 문장 또는 성자의 초상 등을 반지에 새겼다. 또 조개나 발바닥을 새겨넣는 등 심벌은 갖가지였다. 그와 함께 페스트를 예방해 목시룩의 지도자 혹은 카바라¹²⁾의 글귀를 새겨 넣었다. 그 후, 기독교에서는 교황, 추기경, 주교 등이 위임할 때 반지가 사용되었는데 이는 인장 반지에서 파생된 것으로 권위와 영예를 상징하며 종교적으로 큰 역할을 담당했다.



[그림 3] 종교 반지 (출처: 반지의 문화사, p.101)

교황의 반지는 세 종류가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어부의 반지'로 알려져 있으며, 다른 두 반지는 '의식용 교황 반지'와 '보통 교황 반지'이다 특히 어부의 반지는 베드로가 일찍이 어부였기 때문에 그물을 던지는 그림이 새겨져 있다. 어부의 반지는 대대로 위양되고 있으나 이같은 관습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가는 분명치 않다. 교황이 사망하면 교황 반지는 파괴되고 새로 교황이 선출되면 새 교황의 이름이 새겨진 새 반지가 손에 끼워졌다고 한다. 교황 반지뿐 아니라 주교 반지도 있었다. 이는 의식에서 장갑 위에 끼는 것으로 보통 반지보다 지름이 크고 더욱 호사스럽게 만들어졌다. 주교 반지는 초기에는 인장 반지였으나 그 뒤 사파이어를 박은 반지가 많았고 또는 루비를 박은 경우도 있었다. 주교 반지는 '교회와 주교와의 정신적인 결혼의 상징'으로 해석된다. 추기경 반지도 있었는데 교황으로부터 하사받았고, 나중에는 이 반지에도 사파이어를 박는 것이 관행이 되었다. 종교반지는 중세에는 오른손을 성스러운 손으로 여겼기 때문에 오른쪽 집게손가락에 끼게 되어 있어 일반인이 왼손에 끼는 반지와는 달랐다. 그림4는 말케리아누스와 베드로의 순교를 널리 알리는 오른손 성 우물상이다. 그 집게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어 성인의 권위를 나타내고 있다. 이같이 성스러운 반지는 일반인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평신도가 종교적인 모티프가 되는 반지를 끼는 것은 자유였다. 그럴 경우 반지에 새겨 넣는 것으로는 십자가라든가 모노그램 외에 비둘기, 물고기, 어부, 닳과 배, 독수리, 양 또는 '주님, 저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문자를 새겨 넣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종교와 관계가 깊은 것들이었다.¹³⁾



[그림 4] 성 유물상 (출처: 반지의 문화사, p.1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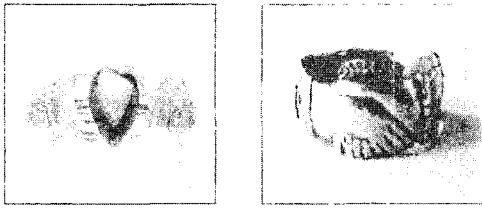
10) 베즐(bezel)은 보석알을 끼우는 난집을 의미한다.

11) 엔그레이빙이란 날카로운 축으로 금속이나 알의 표면에 무늬나 문자를 새기는 방법을 말한다.

12) 유대교의 신비주의 사상

13) 다카시 하마모토 지음, 김지은 옮김: 반지의 문화사, 에디터 pp.99-102 요약 (2002)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약혼식 결혼식 반지의 관습을 중세시대로부터 시작된다. 약혼식과 결혼식에는 같은 반지를 사용했다. 반지 양식에 관한 엄격한 관례는 없었고, 보석 반지는 금 밴드에 'SAVNZ DEPARTIR'¹⁴⁾나 'AUTRE NE VUEIL'¹⁵⁾와 같은 문구를 새겨놓았다. '포지'¹⁶⁾라 불리는 이러한 모토에는 대개 굳정과 사랑의 국제어인 프랑스어가 사용되었다. 반지는 합일을 약속하는 공식적인 자리인 약혼식에서 미래의 신부에게 주었는데, 이러한 예식은 종종 교회 문 앞에서 행해졌다. 결혼식 당일에는 이 반지에 축복을 한 후 신부의 오른쪽 셋째 손가락에 끼워주었다. 결혼반지에는 하트(마음), 손과 손을 마주잡은 것, 십자가, 세 개의 장미, 서로의 이니셜 등이 나타난다.



[그림 5] 하트 반지 (출처: [그림 6] 마주잡은 손 반지 주얼리 시간여행, p.81) (출처: 반지의 문학사, p.55)

존재하는 생물의 중앙에 위치한 하트는 삶에 대한 갈망, 충동, 즉 사랑을 의미한다. 두 개의 선이 서로를 향해 중앙으로 내려와 한 점에서 만나게 되는 것은 한 쌍과 사랑을 주고받음을 의미했고 삶에 관련된 행동을 나타냈다. 또 감동과 느낌을 통해 영혼을 부르는, 육체에 위치한 초인종이라 여겨졌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으로 구원을 뜻한다. 중앙에서 뻗어 나오는 4개의 긴 공간을 나타내며 원 안에 표시된 십자가는 우주를 나타낸다. 가로는 완벽한 땅의 힘을, 세로는 영혼의 힘을 나타낸다. 이 밖에도 '내 마음은 당신의 것', '영원히 이별은 없다' 등의 모토를 새겨놓은 것과 두 겹, 세 겹 반지 등을 볼 수 있다. 이들 대부분은 두 사람을 한 데 결합시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3-3. 르네상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장신구의 화려함은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다다르게 된다. 르네상스 시대의 장신구는 그 작품적인 가치를 놓고 보면 형상 예술의 수준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장신구의 제작은 그 때까지 전통적으로 한번도 다루지 않았던 에나멜 기술과 조각, 주물 기술 등 많은 부분에서 발전이 이루어졌다. 또한, 고전 미술에서 유래된 새로운 모티브는 종교와 감성 등이 새로운 형상으로 재해석되어 중세의 전통적 테마에 첨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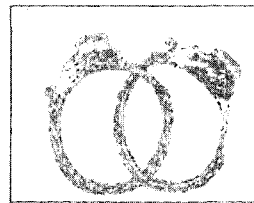
르네상스 시기의 반지는 금반지에 복잡한 문양을 조각하

거나 돌을 무늬를 새긴 다음 에나멜을 입혀 색채효과를 살리고 보석이나 카메오를 세팅하는 식으로 이전 그 어느 때보다도 화려함을 자랑했다. 또 엄지손가락까지 다섯 손가락 모두에, 또는 손가락 관절마다 반지를 끼었다. 르네상스 시기의 높은 과학열은 컴퍼스나 해시계를 장치한 반지에 반영되어 있다. 그밖에도 무겁고 고가품이긴 해도 실제로 시간을 알려주는 반지도 선을 보였다. 보석을 세팅하거나 에나멜 장식을 하는 베를면 아래쪽에 비밀공간을 만든 반지도 있다. 비밀 공간 안에는 유골이나 향을 담았는데 기록에 전해지는 과담에 따르면 독약을 넣었다 한다. 암살자의 손에 끼워진, 독을 칠한 반지에 관한 기록도 있다. 이는 독을 칠한 반지를 낀 사람이 상대방의 팔이나 손을 째면 독이 신속하고도 확실하게 주입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도 반지를 째는 순간 상대방에게 약간 상처를 주게 되는데, 그 반지에 칠해진 독이 찰과상을 궤양으로 바뀌게 하는 것이다. 그 시대에는 찰과상이 궤양으로 변하게 되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독살용 반지는 반지 한쪽에 손톱 모양의 돌기를 만든 후 그 속에 독을 넣어두게 만들어졌다. 그러면 상대방과 악수할 때 반지에 장착된 손톱이 상대방에게 작은 상처를 내게 되고, 그 상처로 독이 침입하게 되는 치밀하게 꾸며진 반지였다. 독살용 반지가 실제로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러한 기록이 여럿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반지가 실제로 존재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¹⁷⁾



[그림 7] 비밀공간을 만든 반지 (출처: 반지의 문학사, p.32)

반지 두 개가 서로 맞물린 지멜반지¹⁸⁾는 두 사람이 결혼으로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 구조로 인해, 주로 결혼반지로 사용되었다.



[그림 8] 지멜 반지 (출처: 장신구의 역사, p.89)

여기에 두 손을 맞잡은 모티프를 넣거나 반지의 밴드 안쪽에 결혼 서약문의 일부를 새기기도 했다. 또 이 시대처럼

14) SAVNZ DEPARTIR은 '내 모든 사랑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15) 'AUTRE NE VUEIL'은 '당신 외에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뜻의 프랑스어

16) 포지(posy)는 poesy에서 유래한 말로서 반지 안쪽에 새긴 격언을 말한다.

17) 다카시 하마모토 지음, 김지은 옮김: 반지의 문학사, 에디터, pp.31-35 요약 (2002)

18) gimmel은 쌍둥이를 뜻하는 라틴어로 gemellus에서 유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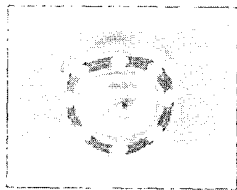
다양한 커플 반지가 유행한 적도 없다. 그 이외에도 더블링과 이중보석 물립,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상대방의 초상화를 간직할 수 있게 만든 반지나 영주들을 위해 만들어진 다이아몬드로 세팅된 화려한 반지, 가문의 문장으로 만들어진 봉인 반지 등이 이 시대의 대표적인 반지들로, 하나하나 모두 주목해서 봐야 할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장신구들이다. 이러한 반지는 모두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거나 상징적 의미와 연관되어 있었다.

3-4 바로크와 로코코 시대

바로크 시대에 들어서면서 장신구는 자연이나 인간 등 형상이 사용되는 비중이 줄어들고 보석의 비중이 늘어났다.

바로크 장신구에서는 가장 인기를 끌던 모티프는 나비매듭형(bow)인데, 아마 장신구를 고정하기 위해 묶던 리본에서 발전한 듯하다. 나비형태와 매듭형태가 결합된 나비매듭형을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 꽃에서 저 꽃으로 팔랑팔랑 사뿐히 날아오르는 나비는 우아함 또는 변화(불안정함)를 나타내는데 당시의 격동적인 시대 상황에 적절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또, 애벌레에서 나비로 탈바꿈하는 모습 때문에 영혼과 정신적 향상의 힘에 비교되기도 한다. 묶고 풀고, 조이고 늘리는 등 매듭이 의미하는 것은 강한 연결상이다. 사랑의 상징 또는 자유의 상징으로도 사용된다. 이 두 가지 모티프는 바로크 시대의 장신구 전반에 걸쳐 사용되었다.

로코코 시대에 들어서면서 제품의 가벼움과 좌우 비대칭의 형상이 선호되었다. 이에 따라 주얼리의 형태도 자유롭게 되었다. 로코코 양식은 파리에서 시작하여, 전 유럽의 장식미술에 영향을 미쳤다. 로코코의 비대칭형은 1780년대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린 우아하고 유려한 꽃, 깃, 잎새 등의 유기적 형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이에 비하면 추상적인 로코코 장신구는 드문 편이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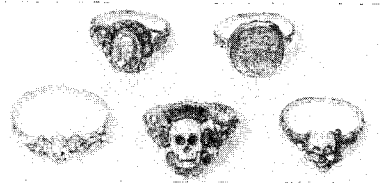


[그림 9] 애도 반지 (출처: 주얼리 시간여행, p.88)

애도 반지(mourning ring)는 그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반지였다. 일반적인 반지 유형은 구불구불한 소용돌이 모양 대여섯 개로 나뉜 수수한 밴드형이다. 여기에 기혼자는 검은색 에나멜로 미혼자는 흰색 에나멜로 장식을 했고 이름, 나이, 사망일자를 금으로 새겨 넣었다. 또 세밀화를 그려 장식한 애도반지도 유행하였다. 세밀화에는 유골단지, 부러진 기둥, 버드나무, 고전풍 의상을 입고 슬피 우는 처녀나 장례식 이미지를 상아나 양피지에 그렸으며, 작은 씨진주와 머리카라도 함께 넣었다. 세밀화는 유리로 덮어 세팅했는데

뒷면에는 사자(死者)의 이름과 사망일짜를 새겨넣었고 머리 카락을 담은 칸도 마련했다. 브로치나 로켓에도 패널을 세팅하긴 했지만 반지의 경우는 손가락마다 대부분을 덮는 긴 타원형 또는 사각형 베젤 덕분에 또 다른 변별성을 지녔다. 유언장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기념품을 구입할 유산을 따로 남겼음을 알 수 있다.

죽음은 이 시대 장신구에서 일정하게 사용된 모티프의 하나이다. 비슷한 형태로 가족들 사이에서 선조를 기념하기 위해 금으로 만든 이니셜이나 죽음의 상징(두개골, 교차된 정강이뼈, 모래시계, 관)을 장신구에 사용하기도 했으며 머리카락 등을 넣을 수 있게 만든 로켓 형태의 장신구도 널리 쓰이곤 했다.²⁰⁾



[그림 10] 해골 형상 반지 (출처: 장신구의 역사, p.102)

사랑의 증표로 전하는 상아 반지와 로켓에는 큐피드, 비둘기, 제단 위의 불타오르는 심장 등을 묘사했다. 큐피드가 발사하는 화살은 사랑의 전령으로 상징되며, 비둘기는 성서에서처럼 노아에게 올리브 가지를 가져온 새로서 평화와 일치의 상징이며 기독교에서는 성령을 의미하며 세례의 상징이기도 하다.²¹⁾ 그밖에 구부러지거나 뚫은 머리카락 묶음을 수정으로 덮고 반쪽 진주, 가넷, 에나멜로 가장자리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 당시 자주 사용되던 형태에는 자물쇠와 열쇠 모양, 뱀 형상 등이 있다. 뱀뿔이 자물쇠와 열쇠 모양은 착용자의 마음을 여는 열쇠를 나타내며, 제 꼬리를 문 뱀으로 테두리를 한 것은 영원을 상징한다.²²⁾ 이 당시 가장 많이 사랑받던 형상은 뱀이 자기의 꼬리를 물고 있는 형태였는데 이것은 영원을 상징하는 것으로서 목걸이나 팔찌 등에서 큰 형태로 사용되거나 메달이나 반지에서 작은 형태로 제작되기도 했다.



[그림 11] 뱀 형태 반지 [그림12] 뱀 형태 팔찌 (출처: 반지의 문화사, p.134) 처:주얼리 시간여행, p.107)

뱀 형상은 원래 기독교 문화 이전의 뱀신앙에서 유래된 것이다. 고대로부터 세계 각처에서 사람들은 뱀을 생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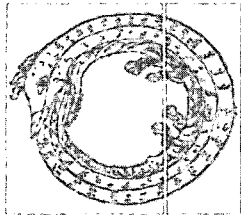
19) H.W 젠슨 AND A.F, 최기득 옮김: 서양 미술사, 미진사, pp.232-233 (2001)

20) 김성희: 주얼리 시간여행, 생각의 나무, p.82, (2002)

21) 조르쥬 나타프 지음, 김정란 옮김: 상징·기호·표지, 열화당, pp.134-135 (1981)

22) Ibid., pp.55-61 요약

불사, 풍요의 상징으로 믿어왔다. 뱀에 대한 신앙의 근원은 고대 인도, 동양, 그리고 에트루리아에 있는데, 특히 인도에서는 머리와 꼬리가 이어진 뱀은 '하나님의 검'으로 불리었다. 오우로보로스라고 불리는 꼬리를 삼킨 뱀도 있다. 이는 이집트의 '세계를 삼키는 뱀'에서 유래한 것인데, 오우로보로스는 지중해 지방에 퍼져 있으며 처음과 끝의 연속과 영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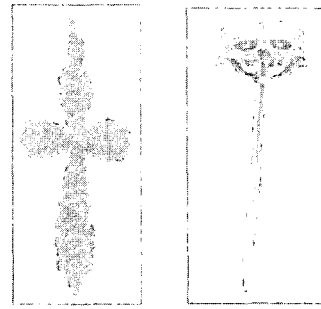
[그림 13] 오우로보로스 (출처: 반지의 문화사, p.132)

반지는 감상적인 장신구로써 최고의 인기를 누렸고, 애정의 메시지는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되었다. 문자를 베즐에 배치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수수께끼 기호 같은 'M MOI'는 'aimes moi'(나를 사랑해 주오)를, 'JM'은 'j'aime'(나는 사랑하오)를 의미한다. 지젤 반지의 인기도 꾸준했다. 이 밖에도 다이아몬드 등의 보석을 박은 다양한 반지가 결혼반지로 사용되었다.²⁴⁾

3-5. 빅토리아 시대

빅토리아 여왕이 왕위에 올랐던 기간 동안 장신구는 그 시대의 감상적 경향을 표현하는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 시대에는 죽은 이를 애도하기 위한 장신구의 사용이 하나의 관습으로 굳어졌는데 이에 따라 독특한 디자인의 장신구가 제작되었다. 이 때의 많은 장신구들은 죽은 자들을 기념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작은 상자 등의 뚜껑을 투명한 유리나 크리스털로 만들고 그 안에 머리카락 등을 넣어 지니고 다닐 수 있도록 한 장신구나 'Mizpah'²⁵⁾, 또는 '나를 잊지 말아요' 등의 감상적인 글 등을 써서 메달이나 반지 등으로 지니고 다니기도 했다. 또 죽은 자를 기념할 수 있는 유품 등을 담아 짧은 애도의 뜻이나 죽은 자의 이름, 생년월일 등을 적어 사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종류의 장신구 이외에 십자가와 하트 모양을 사용해 제작한 장신구는 전 시대와 같이 신뢰와 믿음, 희망과 진실의 의미로 계속 사용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장례식용 장신구의 사용은 더욱 중요시되었다. 이러한 장신구의 형태는 점점 더 수요가 많아졌으며 결국 장례식용 장신구는 대량으로 생산되기에 이른다. 특히 앨버트 왕의 죽음에 대한 빅토리아 여왕의 비통함과 애타운 모습은 무시무시한 취향의 어두운 장

신구를 만들게 했지만 뒤에 이어지는 밝은 분위기에 의해 조금씩 사라지게 되었다.²⁶⁾



[그림 14] 빅토리아 시대의 장신구들 (출처: 쥘 알리 시간여행, pp.115~116)

3-6.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아르누보와 아르데코 시대의 장신구들은 그 이전 시기와 확연하게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다. 과거와 같이 그 시대에 선호하는 상징들이 한정적인 것이 아니라 존재할 수 있는 모든 형태가 고정되지 않은 다양한 상징성을 가지고 사용되었다. 때로는 상징과의 연관관계없이 형태 그 자체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아르누보와 아르데코의 장신구는 상징과의 연관관계보다는 장식적 측면이 강하게 나타나는 현대장신구의 출발점이라 보여진다. 아르누보 운동은 매우 섬세하고 매혹적인 장신구를 선보였다. 현란하게 소용돌이치는 선과 우아한 만곡형으로 변화한 당시의 장신구들은 유럽 미국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감각이 주도적이 역할을 했고, 자연 이미지에선 낭만적인 덧없음과, 세상에 지쳐 버린 인간에게 지배당하지 않는 자연의 야성이 부여되었다. 세기말 데카당스²⁷⁾나, 이국취향과 신비주의에 사로잡힌 상징주의가 자연주의에 반영되기도 했다. 전시대(빅토리아 시대)에서 약 반세기 동안 사용되었던 딱딱한 면과는 확실하게 구별되는 선의 유동적인 자유로움과 자연적인 것에 집중한 주제의 사용, 또 세롭고 강렬하며 다양한 색채의 사용 등이 아르누보 시대의 특징적인 스타일이다. 아르누보 스타일의 중심은 1900년대의 파리로 아이보리(상아)나 동물의 뿔, 화려한 색상의 에나멜 등을 사용해 제작한 자연주의의 장신구가 아르누보의 대표적인 스타일로 자리잡았다. 이 창조물들은 예술적으로도 아주 높은 가치를 지닌 작품이기는 했지만 장신구의 고유한 성격에서는 약간 벗어나는 까닭에 오래 가지 못하고 제 1차 세계대전 초기에 사라지고 말았다. 아르누보는 제품을 만드는 기술적인 면과 제품 사이에서 발생하는 관계를 엄격히 고려해서 본다면 사실 그 시대에 생긴 단순하고 순수한 스타일이라고 하기보다는 새로운 스타일, 즉 형상 예술 분야의 예술의 적용이라고 볼 수 있

23) 다카시 하마모토 지음, 김지은 옮김: 반지의 문화사, 에디터, pp.132~134 요약 (2002)

24) 클레어 필립스 지음, 김 숙 옮김: 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p.122 (1999)

25)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는 동안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의 말

26) 김성희: 쥘알리 시간 여행, 생각의 나무, 시공사 pp.115~119 (2002)

27) 데카당스란 보통 쇠퇴, 조락, 퇴폐를 뜻하는 프랑스어로, 원래 로마제국 쇠망기의 타락과 방탕의 시대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문학·예술의 건전한 정신이 쇠잔하여 예술활동이 정상적인 기능을 잃고 퇴폐적 경향으로 흐르는 것을 말한다.

다. 다시 말해 예술품의 사용 범위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1918년 전쟁 직후에는 새로운 장르인 아르데코(art deco)가 장신구의 새로운 스타일로 자리잡게 된다. 이전까지 주를 이루던 자연 모티브와 전통적인 것을 배제하고 대신 큐비즘과 추상주의 등의 동시대 미술과 독일 바우하우스 건축의 영향을 받은 장신구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아르데코(art deco)시대의 장신구 제작자들은 그 이전까지 한 번도 제작된 적이 없는 불후의 명작들을 많이 만들었다. 이 때는 대담하면서도 정성을 담아 만든 환상적인 대작부터 신선하고 장난스럽기까지 한 제품들이 같이 존재했다. 이 시대 고급 장신구(fine jewelry)의 주제로 선호되었던 것은 표범이나 영양, 사슴 등과 같이 귀족적인 느낌을 주는 빠르거나 우아한 동물들이었다. 사슴의 뿔은 때때로 햇살 같은 느낌을 주는 까닭에 생명의 나무로 비교되기도 한다. 전통과 문화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나라에서 사슴은 사람과 신의 중간 세계에 사는 고귀한 동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²⁸⁾ 무엇보다도 아르데코 장신구 스타일에 가장 많은 영감을 불러일으킨 것은 이집트 파라오²⁹⁾와 동양, 아프리카 부족 등이었다. 또한 그 당시의 예술 흐름의 주류였던 큐비즘과 미래파, 기괴와 그래픽 등도 좋은 소재였으며 층층 계단이 많은 마야 시대의 건축물에서 메트로폴리스의 고층 빌딩에 이르는 독특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또한 장신구 디자인의 소재로 많이 쓰였다. 이렇게 아르데코 시대 장신구에는 디자인에 대한 한계가 없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아르데코 장신구에는 기하학적인 디자인인 원형, 사각형, 나선형 등이 월등히 많이 나타나는데 형태는 단독으로, 또는 여러 개를 번갈아 가며 쓰기도 했다. 이 시대 장신구의 주제와 형태는 과거처럼 상징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원은 돌고 도는 움직임, 시작도 끝도 없는 완벽한 점으로 시간과 순간을 나타낸다. 이 보이지 않는 순환은 또한 하늘과 태양, 생명의 신, 다시 말해 하늘을 상징하기도 한다. 이와 반대로 땅은 사각으로 표현한다. 사각형은 땅의 상징으로서, 4라는 숫자처럼 땅이 가진 네 면을 나타내며 또한 네 가지 원소를 뜻하기도 한다. 삼각형은 숫자 3을 의미하며, 균형 잡힌 이 형태는 삼위일체를 상징함과 동시에 조화와 신성함을 나타낸다. 위의 뾰족한 점은 남성과 불을, 밑의 두 점은 여성과 물을 의미한다. 나선형은 하나의 선이 동동 말린 것이나 원점으로부터 펼쳐진 것으로 표현된다. 진보와 다산을 의미하며 태양이 뜨고 지는 바다에서 힘차게 출렁이는 파도의 이미지와 연결하기도 한다. 미궁으로 표현될 때에는 입구와 출구를 쉽게 찾을 수 없는 혼란의 이미지를 갖기로 한다.³⁰⁾

역사적으로 가장 아트적인 장신구는 50년대 이후의 장신구이다. 특히 독일의 장신구들은 '사각형'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기하학적인 단순한 형태 이외에도 그림을 그려 넣은 것, 글씨를 집어넣은 것, 금을 가지고 사람의 몸 한 부

분을 사실적으로 만든 것 등 장신구 디자이너들은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장신구 아트라는 장르를 만들어냈다. 또 과거처럼 한 개의 장신구가 하나의 의미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복합적이고 다양한 상징적 의미를 갖게 되었다.

3-7. 제 2차 세계 대전 이후와 현대의 장신구

제2차 세계 대전은 유럽 장신구 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많은 장신구 제조 공장들은 폭격으로 파괴되었고 그나마 온전하게 남은 공장들도 직원들이 전쟁에 참여하거나 군사물품 제작을 위해 동원되어 공장 운영이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의 장신구는 아이러니하고 우스꽝스러운 장신구부터 화려한 스타일과 현대적인 스타일의 장신구가 시작된 중요한 시점이 되었다.

현대 장신구가 추상적인 형태를 취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긴 하나, 중요한 자연주의적 작품 또한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21세기에는 지난 수 천년 동안 존재해 왔던 장신구의 스타일을 모두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부터 존재해 왔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장신구 회사들, 고전적인 것을 고집하는 장인들과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신진 디자이너들, 옛 스타일을 리바이벌해서 자신의 스타일로 바꾸는 회사나 디자이너들 등 각기 다른 수많은 스타일의 장신구가 동시에 만들어지고 있다.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세계 각국의 지역적인 특색이 살아 있는 장신구를 이제는 어느 곳에서나 찾아볼 수 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많은 디자인의 풍요로움 속에 살고 있다.³¹⁾

그 밖에도, 현대 장신구의 특징은 금의 색을 달리하거나 여러 가지 투명한 유색 보석을 사용하는 등 색상이 장신구의 스타일을 결정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원소가 되었다는 점이다. 붉은 색은 정열과 사랑, 부귀, 노란색은 따뜻함과 시기, 파란색은 현명함과 건강, 초록색은 안정과 선행, 검은색은 우울과 세련됨, 투명한 백색은 순수와 완전함의 상징으로 널리 사용되었다.³²⁾ 그러한 이러한 색의 상징도 고정된 의미라기보다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성격이 나타난다.

1960년대 이래로 장신구란 무엇인가, 장신구와 다른 분야와의 경계선은 어떻게 규정되어야 하는가, 장신구는 예술인가 아닌가 하는 많은 논의가 있어왔다. 또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등장한 신세대는 장신구의 본질과 사회역할에 의문을 품었다. 재능있는 미술학교 졸업생들 상당수는 장신구가 성적 스테레오타입에 얽매이거나 전통적인 신분적 의미로 간주되기를 거부하였다. 그 이면에는 장신구를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그 다양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는 단명하지 않고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데, 일부는 거의 모든 면

28) 김성희: 주얼리 시간 여행, 생각의 나무, p.200 (2002)

29) 1920년대에 이집트에서 투탕카멘왕의 묘가 발견되면서 그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집트에 대한 대단한 붐이 일어났다.

30) 조르주 나타프 지음, 김정란 옮김: 상징·기호·표지, 열화당, pp.80-91 (1981)

31) 클레어 필립스 지음, 김 숙 옮김: 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pp.195-215 요약 (1999)

32) 사단법인 한국 색채 협회: 컬러리스트 이론편, 국제, pp.138-149 요약 (2002)

에서 혁신적인 태도를 보였고, 또 일부는 새롭긴 해도 뿌리는 전통에 둔 양식을 택하였다. 이는 상징과의 관계뿐 아니라 장신구의 다른 여러가지 성격에 대한 진지한 성찰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4. 결론 및 제언

본 논문에서는 장신구의 여러 종류들 중 상징적 의미가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반지를 중심으로 고대에서부터 중세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장신구가 시대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을 맺었으며, 그 내면에 존재하는 상징과 의미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장신구의 상징적 의미는 고대와 중세에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근대와 현대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고대의 장신구는 장신구의 종류 씌어진 재료, 사용된 문양 하나 하나가 커다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중세에는 종교의 영향으로 모든 장신구는 기독교와 연관이 있는 강력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근대에는 다른 예술 분야의 발전과 함께 장신구의 미적 측면이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됨에 따라, 의미 뿐 아니라 미적 측면에 대한 고려도 생겨났다. 현대에 들어오면 과거의 모든 의미가 받아들여짐과 동시에, 장신구의 본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장신구의 의미 자체를 거부하려는 시도도 나타나고 있다.

둘째, 각 시대별로 장신구가 갖는 의미의 변화를 살펴보면, 고대 중세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받아들여지는 공통성, 보편성을 지닌 의미가 많았다면 근대 이후 현대에 가까워질수록,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미가 증가하였다. 고대에는 생존을 위해서 상대를 위협하거나, 권위를 나타내는 장신구가 대다수를 이루다가, 중세에는 왕권과 종교를 추앙하는 성격의 장신구가 강하게 나타났다. 근대에 들어오면 그리움이나 애정 등 자신의 사적인 감정을 나타내거나,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기 위한 목적이 부가된다. 현대에는 장신구가 갖는 의미들이 과거처럼 일정하게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다양해져 더욱더 개인적인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장신구를 사치품으로 치부하거나 부정적 대상으로 간주하기에는 장신구와 인간의 감정적 연관관계가 매우 깊다. 결혼 관련 산업의 광고와 선전으로 장신구를 언급하면 다이아몬드 반지를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고, 그에 따른 사치의 이미지 때문에 다른 반지나 장신구 전체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된다. 그러나 장신구의 본질이 인간의 몸에 착용하는 예술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장신구를 착용하는 행위가 인간의 내면의 감정을 외부로 나타내주는 방식이 되는 것이다. 그것은 화가가 자신의 감정을 캔버스에 그린 그림을 통해 외부로 표출하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장신구의 본질은 우리의 마음속에 의미와 상징을 불러일으키며, 겉으로 나타내기 어려운 내면의 감정을 착용된 인간의 몸을 통해 표현해주는 매개물인 것이다.

장신구 전반의 상징적 의미에 대한 고찰은 한 편의 논문에서 다루기에는 범위가 너무 광대하여, 오늘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결혼이라도 상징적 의미를 갖는 결혼반지에서 착안하여, 반지를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반지 이외에도

다른 종류의 장신구들의 의미와 상징의 대한 조사와 연구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참고 문헌

- A.N. 화이트헤드 지음, 문창욱 옮김, 상징활동 그 의미와 효과, 동과서 2003
- 조르주 나타프, 김정란 옮김, 상징, 기호, 표지, 열화당, 1987
- 킷 브노와 지음, 윤정선 옮김, 징표, 상징, 신화, 탐구당, 1988
- 클레어 필립스 지음, 김숙 옮김, 장신구의 역사, 시공사, 1999
- 다카시 하마모토 지음, 김지은 옮김, 반지의 문화사, 에디터, 2002
- 김성희, 주얼리 시간여행, 생각의 나무, 2002
- H.W 젠슨 & A.F 젠슨 지음, 최기득 옮김, 서양 미술사, 미진사, 2001
- H.W 젠슨 지음, 백승길 옮김, 서양미술사, 예경, 2003
- 한의택, (성경에 나타난) 동식물 상징, 예루살렘, 2003
- 윤익영, 도상해석과 조형분석, 도서출판 재원, 1998
- 기와노 히로시 지음, 진중권 옮김, 예술, 기호, 정보, 셋길, 1992
- 에드워드 루시-스미스, 상징주의 미술, 열화당, 1987
- 이종희, 표상의 개념: 상징, 이미지, 모방과의 관계, 한국 유아교육학회, 18권, 1호, 1998
- 최영옥, 서양 문장의 상징성에 대한 연구 - 중세 서양문장과 복식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 18권, 1호, 1994 춘사, 1984